

교회 예배시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사도신경 가장 많이 알려진 신앙고백이자 한국 개신교회 예배시 주로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자 합의한 신앙고백입니다.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세상의 모든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합니다.

감리교교리적선언 한국 감리교회만의 신앙고백으로서 한국감리교회 최초의 문서화된 신앙고백입니다.

1. 오늘 주일은 성령강림 후 제12주일입니다.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2. 오늘 예배 설교를 맡아주신 김의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8월-9월 예배 및 기도회 담당자 안내.
-예배 안내자: 8월 홍기원 청년, 9월 김정수 집사
-기도회 인도자: 8/20 정원철 집사, 8/27 신미영 성도, 9/3 김주은 집사, 9/10 양승희 집사, 9/17 김수미 성도
-예배 기도자: 8/27 홍기원 청년, 9/3 공동기도, 9/10 김주은 집사, 9/17 공동기도, 9/24 양승희 집사

다음 주 성서 일과 (성령강림 후 제13주)

제1말씀 : 이사야 51:1-6
제2말씀 : 로마서 12:1-8
시편교송 : 시편 124편
복음서 : 마태복음 16:13-20

예배 봉사 담당자

8월 27일	9월 3일
대표기도 : 홍기원 청년	공동기도
제1말씀 봉독 : 김정수 집사	황유란 집사
제2말씀 봉독 :	
복음서 봉독 : 집례자	집례자

8월 예배 안내 봉사자 : 홍기원 청년회장

8월 다과 준비부서 : 사회봉사부

안내 예배시간 및 교통편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등록 절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리중앙감리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 한감리회 중앙연회 유럽지방 소속입니다.
(Association Culturelle de L'Eglise Methodiste Coréenne De Paris)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에 참석하신 후 새 신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담임목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공동예배 : 매 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기도회 : 매 주일 예배 후 진행

오시는 길
17 bis, Rue Bayard 75008 Paris
메트로 1, 9호선 Franklin Roosevelt
메트로 1, 13호선 Champs-Élysées Clemenceau
교회 홈페이지 emcp-france.com/
네이버 카페 : 파리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연락처 06 58 41 28 08
e-mail: macarius@hanmail.net

2023년 주제 : “새 힘과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5)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배함으로 참 기쁨과 진리를 얻는 예배 공동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평화를 가꾸는 생활 공동체

오늘의 묵상

신앙독서

자기중심의 독백에서 친밀로 대화로

기본적으로 기도는 홀로 하는 행위입니다. 홀로 하기에 기도는 독백에 가깝습니다. 홀로 하는 행위로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의 위대한 일기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는 기도는 때로는 정말로 혼자서만 하는 일이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독백에서 대화의 방식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럴 때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단순하면서도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응답의 말씀을 하루 종일 품고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매개로 한 기도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쉬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거나 의식적으로 그분께 말한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탄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영적인 삶에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 즉 멋진 생각, 흥한 생각, 고상한 생각, 저질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창피한 생각, 슬픈 생각, 기쁜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될 수 있을 때에만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생각이 끊임없는 기도로 바뀔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 독백에서 하나님 중심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대화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무슨 내용인가라기 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내어놓는가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말씀드리는 일, 그 일을 시도하는 일은 행복하고 귀한 일에 분명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길에 들어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예배 순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계십시오.

성령강림 후 제 12 주

집례 : 박재현 목사

개회의 예배		
침묵기도 Temps de Silence et de Recueillement		다함께
개식사 Paroles d'accueil		집례자
✠ 입당송 Cantique	43 장 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 인사 Salutation de paix	✠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우리와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Prière de Repentance et Annonce du Pardon de Dieu		다함께
✠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 (각자) 참회의 침묵 기도 (1분간 기도합니다)		
✠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5:9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 경배와 찬양 Cantique	621 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 신앙고백 Confession de Foi	사도신경 (새번역)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송 Psaume du jour	시편 67편 (구약 799쪽)	다함께

영광송 Spotane	2 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를 향하여 서십시오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Prière		공동기도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의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자녀의 소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마음 주 앞에 감사로 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우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능력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도, 세상도, 사람도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궁핍감이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매마름을 깨달아 참되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파고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이치와 가치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건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모인 우리 예배 공동체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교회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예배		
오늘의 말씀 Parole d'aujourd'hui	마태복음 10장 2-4절 (신약 13쪽)	김태균 집사
요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조건 자격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설교 Prédication	예수님의 제자	김의진 목사
찬송 Cantique	459 장 누가 주를 따라	다함께
봉헌 및 기도 Prière d'offrande	집례자	
폐회의 예배		
교회소식 Annonce	집례자	
결단의 찬양 Cantique	620 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다함께
결단의 선포 Proclamation	교우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축도 Bénédiction	집례자	